Ⅰ 서론

1. 연구 배경

○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화와 금융·비금융의 빅블러(Big Blur)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

- 이에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적 금산분리 원칙을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[1)]

○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종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고객 편의성 제고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, 빅테크 기업이 먼저 금융·비금융을 결합하여 사업을 선점하고 있음

- 그러나, 금융회사의 경우 그동안 비금융업에 진출할 수 없다는 전통적 금산분리 원칙이 고수되면서 엄격한 업무 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

○ 특히, 국내 보험산업은 저출산·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 한계로 인하여 일본식 장기 저성장 구조[2)]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

-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보험산업의 새로운 수익원과 고령 친화적인 상품·서비스 발굴,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적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

○ 이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비금융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고,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비금융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선진 금융·보험회사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

- 특히, 일본은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저출산·고령화와 보험산업 성장 정체를

1)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22. 11. 16), "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·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"

2) 일본은 거품경제 붕괴와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실질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25년 전과 유사한 수준이고,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도 지난 30년간 3.2% 성장하는 등 보험산업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음

먼저 경험하면서 2000년대부터 M&A 등을 통한 대형화와 수익구조 다변화를 시도하는 한편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

- 또한 최근에는 일본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여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포함 금융관련법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 시행한 바 있음

○ 본 보고서는 최근 일본의 보험회사에 대한 업무범위 규제완화 입법 동향과 일본 보험회사의 비금융업무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- 다만, 최근 투자·진출한 비금융업회사의 경우 대부분이 아직 진출 초기단계에 해당하고, 자회사 경영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수익성 및 사업 타당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

2. 연구 범위

○ 조사 범위는 일본 보험업의 비금융업 진출 규제 완화와 관련한 2019·2021년 입법 내용과 수익원 발굴을 위한 보험회사의 비보험업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제한함

- 조사 대상은 일본에서 영업 중인 손해·생명보험회사 총 16개 그룹의 지주회사와 보험회사 자회사, 비보험 자회사를 대상으로 국내 보험회사가 관심이 많은 요양, 헬스케어, 은행대리업, 반려동물보험, 핀테크 투자 등의 사업임

○ 조사 방법은 일본 보험법규, 연차보고서, 공시자료, 언론자료,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내부보고서를 참고하였음

- 보험회사의 비보험업 진출 사례는 보험지주회사, 보험회사, 비보험회사 등의 연차보고서와 공시자료, 보도자료를 참고하고, 현지 보험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현장의 생생한 현지 동향을 전하고자 노력하였음

○ 본 보고서는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 2019·2021년에 개정된 보험업법의 보험업법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법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봄

- 제Ⅲ장에서 일본 보험회사의 비보험업 진출 현황과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, 제Ⅳ장 결론에서는 최근 일본 보험업의 특징과 국내 보험업무 범위의 규제 완화 방향성을 검토함